

광주·전남 물가 낙달 연속 3%대 상승

채감물가 4%대 전국 평균 웃돌아
석유류 제품 17.2%·17.9% 올라
외식물가 상승률 5%대 진입
유가 상승 반영 오름세 지속

평균(4.1%)을 웃돌기도 했다. 광주·전남 지역은 공업제품이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더 높았다. 전국 공업제품 물가 상승률이 4.2%인 반면, 광주와 전남은 각각 4.3%, 4.9%이었다. 공업제품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이 유독 높은 상승률을 보인 품목은 석유류였다. 지난달 광주·전남 석유류 상승률은 각각 17.2%, 전남 17.9%로, 전국 평균(16.4%)을 웃돌았다. 자동차용LPG 가격이 전국적으로 34.5% 오를 때 광주는 39.5% 치솟았고, 등유 가격은 전국 25.7% 오를 때 전남은 29.0% 급등했다. 휘발유 값 상승률도 광주 13.9%·전남 13.3%로, 전국 평균(12.8%)을 웃돌았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해 11월12일부터 유류세 20% 인하를 단행해왔지만 기름 값은 2~3주 전부터 반등했다. 유류세 인하 종료는 오는 4월30일까지다. 단 국제 유가가 안정되면 인하 조치는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 주간 l 당 평균 보통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1월 둘째 주 광주 1797.39원·전남 1795.61원까지 치솟았다가 유류세 인하 이후 내림세를 지속했다. 하지만 지난달 셋째 주부터 휘발유 가격이 반등하

면서 이달 첫째 주 평균 가격은 광주 1651.37원·전남 1665.29원으로 올랐다. 당국은 2월에도 국제 유가 상승영향으로 소비자 물가가 오를 요인이 강하다고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1월 소비자물가 동향' 참고자료를 발표하며 "평질수요가 끝났지만 국제 유가 상승영향이 반영되고 개인서비스와 공업제품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상방요인이 강하다"며 "국내 오미크론 변이양상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새해 들어 유망 프랜차이즈와 식품 제조기업이 커피와 햄버거, 빵, 양념장, 냉동만두 등 가격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광주 외식물가는 8개월 연속, 전남은 18개월 연속 전월비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지역 외식물가는 전년 같은 달보다 광주 5.2%·전남 4.5% 상승했다. 광주에서는 떡볶이 가격이 지난해보다 14.1% 상승했고, 전남은 설렁탕 값이 8.7% 올랐다. 갈비탕 값은 광주 13.9%·전남 13.4% 인상됐고, 삼겹살 가격은 광주 6.5%·전남 7.3% 올랐다. 김밥 가격도 광주서 10.9%, 전남서 2.5% 상승하고, 치킨 값은 광주 4.8%·전남 4.1% 인상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 '응원꾸러미' 전달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오른쪽)은 지난 4일 '광주시 서구 화동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광주시소방본부 119구조대원을 위해 간식 등 16종으로 구성된 600만원 상당 '세이브 응원꾸러미' 100상자를 전달했다. 광주은행은 지난달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기히터 등 방한용품과 간식을 전달하기도 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

불공정 탈세행위 엄단
소상공인 세정지원 등 다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이판식)은 지난 4일 '2022년 광주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회의에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방향 및 우수 추진사례 등을 공유하고 일선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다. 이판식 청장은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추진과제를 선정해 세부계획을 면밀히 수립, 성실납세 지원과 공정세정 실현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 세정지원과 소득과약 제도 안착을 통해 불공정 탈세행위를 엄단하는 등 균형있는 세정 집행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밖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각 관서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적기



에 확립하는 등 공공부담 증대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MZ세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주제로 한 자유토론에서 상호공감을 통해 관리자가 중심이 돼

건강한 직장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기로 했으며, 코로나 확산에 따라 전 직원 진단검사 및 진료체계의 변경내용을 숙지하고 사적모임 자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기로 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5년간 임금 17% 오를때 세금 39% 올랐다

근로자 임금에 비해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증가율이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국경연)은 2016~2021년 고용노동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월 임금은 2016년 310만5000원에서 지난해 365만3000원으로 17.6% 늘었다. 반면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같은 기간 36만3000원에서 50만7000원으로 39.4% 증가했고, 근로소득세 부담은 10만2740원에서 17만5260원으로 70.6%나 늘었다. 이는 소득세 과표구간이 2010년 이후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국경연은 설명했다. 물가상승 영향으로 월급이 올라도 근로소득세는 상위 과표구간이 적용돼 사실상 자동적으로 세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사회보험료 중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고용

보험료였다. 고용보험료는 2만187원에서 2만9229원으로 44.8% 늘었다. 이는 실업급여 지급기준 확대(최대기간 240→270일·평균임금 50%→60%)로 요율이 인상됐기 때문이라고 한국경연은 분석했다. 건강보험료도 같은 기간 10만1261원에서 13만8536원으로 36.8%가 증가했는데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증가, 보장범위 확대 등에 따른 요율 인상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연은 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물가상승까지 더해져 근로자의 체감임금은 더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연은 "과도한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 부담은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소비 여력을 축소하는 요인이 된다"며 "차기 정부는 물가에 따라 자동으로 과표구간이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사회보험 지출구조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사학연금 3년 연속 11%대 수익률 달성

나주 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3년 연속 11%대 수익률을 냈다고 6일 밝혔다. 사학연금의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은 11.95%를 나타냈다. 운용수익은 장림 이래 최고인 2조 4738억원으로, 2년 연속 2조원대를 달성했다. 사학연금은 "지난해 선진국 위주의 해외 주식시장 호황과 대체투자자산의 공정가치 상승에 힘입어 기준(BM)수익률 대비 2.46%포인트 상회한 10년 이래 최고의 수익률 11.95%를 기록했다"며 "특히 자산군 중에서는 자산가격 상승 등에 따른 환율효과에 힘입어 해외채와 해외주식 성과가 돋보였다"고 설명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로또복권 (제1001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6	10 12 14 20 42	15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077,279,594	12
2	5개숫자+보너스숫자일치	62,947,867	66
3	5개 숫자일치	1,504,730	2,761
4	4개 숫자일치	50,000	140,255
5	3개 숫자일치	5,000	2,346,904

오늘부터 백화점·대형마트 호객·시식 금지

7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서의 호객행위와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는 판촉·호객행위 및 이벤트성 소공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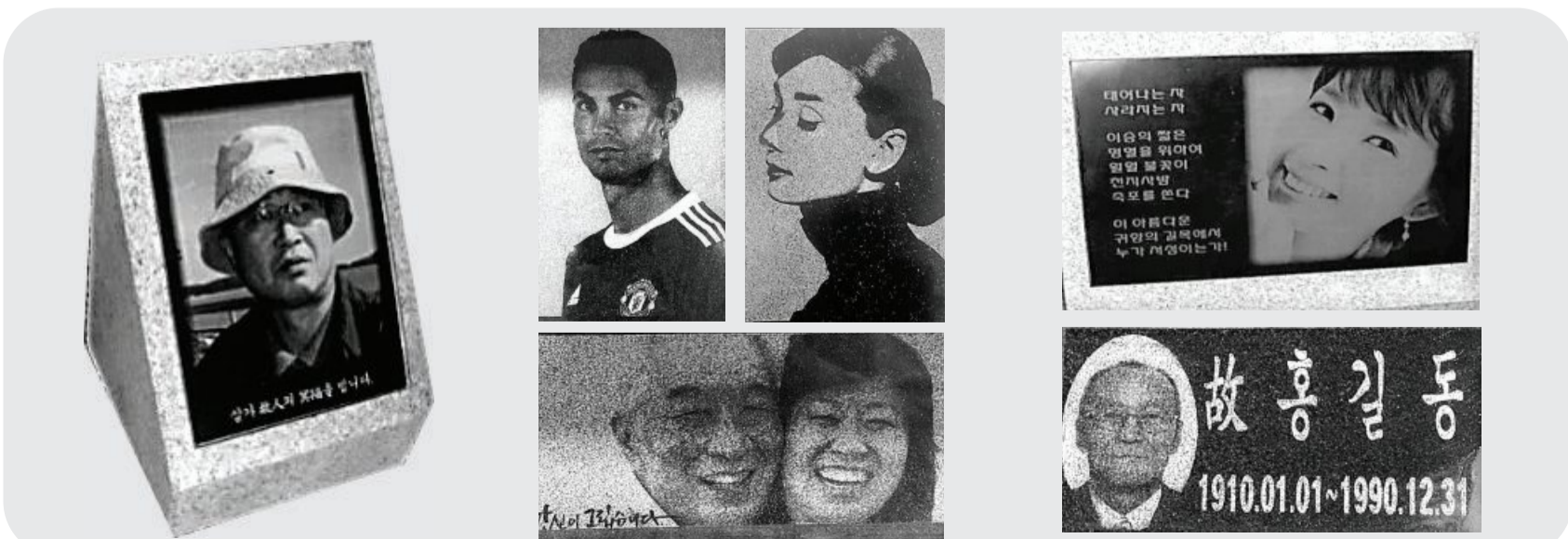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다. 중대본은 "강화된 수칙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이달 7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라며 "업계의 참여를 통해 정부와 시설이 함께 수칙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현장 이행력과 방역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되는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는 광주 16곳·전남 18곳 있다. 유형별로 백화점 4곳, 대형마트 21곳이 등이 있다. 광주·전남지역을 포함한 대형마트들은 빠르게는 지난 2020년 5월 또는 지난해 7월부터 판매를 위한 취식(시식)을 전면 금지해왔다. 방역 강화 시행 전부터 대형마트 협력사들은 전 열대 인근에 배치했던 판매 인력을 줄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나는 떠났고, 내기 살던 세상의 흔적을 오석의 그리고 싶디

<오석의 대표적 장점>

- ✓ 영구적
- ✓ 종량감
- ✓ 아득함
- ✓ 신
- ✓ 불변함



제이와이석재 문의전화 | 062)464-3466

<주 사용처>

문패, 준공성, 식수석, 묘지용 와비, 납골당 수목장 표지석, 인테리어 돌액자

- 주요제작사이즈 -

1. 100×200×20
 2. 200×200×20
 3. 300×200×50
 4. 400×300×20 (가로×세로×높이)
- 기타사이즈는 문의

[오석]의 특성

경도, 강도가 좋은 오석은 화산석, 화강암보다 더 진귀하게 여겨왔고 왕가나, 부호의 대명사였기에 비석, 표석, 묘석, 조각석 이외 많은 자재에 고급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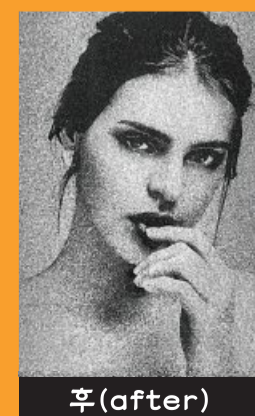
<기존 돌액자>

아크릴, 유리 등 다른물질에 인쇄 후 부착



<돌 자체에 각인>

(오랜시간 변함이 없음)



*오석에 직접 각인하는 직접 특성상 사진과 똑같은 컬러는 불가능하니 이점 감안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